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·충북본부, 예산 침수 피해 지역 찾아 복구지원

기사입력 2025-07-23 17:24:24

빠른 일상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...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 40여 명 직원들 침수복구에 땀방울

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충북본부 직원들이 침수피해 지역 복구에 함께하고 있다 / 사진 :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제공

[대한경제=나경화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가 23일 예산군 고덕면 일대의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침수 주택 복구 활동 및 수로 정비 등 현장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.

이날 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의 직원 40여 명은 예산군 고덕면의 주택가를 찾아 침수된 가전, 가구 등 폐기물을 정리하고 마을 주변에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생활 폐기물 및 영농 폐기물 등을 수거하며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땀방울을 흘렸다.

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 “우리의 복구 지원활동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수해를 입은 지역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구지원에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

충남=나경화 기자 nkh67@daum.net

<© 대한경제신문(www.dnews.co.kr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>



나경화 기자

nakh67@

- ▶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'대한경제' 앱을 다운받으시면
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- 명품 콘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!